



楚漢 乾坤
秦始皇傳
전 시 황 전

京城博文書館發行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nches 1 2 3 4 5 6 7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

초한
권본
진시
항전



화설연, 로, 한, 위, 제, 초, 진일곱나라중에로나라는본리진나라로더부러등
성이라로나라최초력스를드러말홀진디당초에비럼이라하는스름이아들계속을두
고후에또조부를두엇더니조부는성정이호탕하야주목왕에마부가되여주목왕으로
더부러팔준마를어거하고두루던하에노라헝홀시수레박회와발즈최가일으지아니
홀곳이업스며하로는곤륜산에올났더니맛츠셔왕모가요지에서잔치를베푸러옥일
금장을마시고룡호봉포를먹는지라그선경에즐기물보고마음에깃거하야도라가기
를이져더라그더셔은왕이주목왕에출타함을괴회로삼아니란을지엇거늘천리밖게
일을누가추족하리오마는금모는미리런괴를침작하고주목왕다라일너왕네가속히
도라가라네나라홀다른사람에웅거홀비될가하야두리노라조부이말을듯고급히목
왕에슈리를어거하고달여도라가셔구와병을초나라히비러다가은왕을쳐서정돈하
니목왕이조부에공을표하야한단싸히가셔왕노릇을하랴명하므로드디여쥬씨가되
얏더라그후에조부가속을낫코속은쇠를낫코쇠는선조순을낫코순은삭을나은지라

서로전하야오더니중간에천신도안고의개멸흔비되얏다가다행이유복조부가잇서
차차장성후에도안고에원슈를잡고조하야군사를거느리고도안고를쳐서멸후
한단싸히도음다전후심일디를전하야오는중왕이라일각른지다섯실너라로혜왕
오년춘삼월에진나라소왕이대장왕홀왕전과황손이인을명하야군사심만을거느리
고로나라를철시군사를셋제에난화점사로나라대경으로드러가서영치를정돈후
군사를스면으로보너여순로홀시희보하야알여기셔오십리되는장하사에직히는장
슈리게슈이스문을구지닷칠뿐아니라성우에기처를세우고성아리는준비를조와
는이다하거늘왕전이알로나라에임의준비가저려흔즉가히경선이동치곳홀지라우
리군사가만일망영되이동하면저놈에게교를일워줄가두렵도다하고다시사람으로
하야금그허실을정담흔연후에음습하야치미늦지아닐가하노라츠열장을직히는
리게슈이진나라군사가대경에갓가이드러왔스리감히나아가디적지못홀출싱간하
고삼군으로하야금각기성문을직회라하고급하사람을노하나는드시로왕게보하야
알진나라히왕홀왕전과황손이인을보너여군사심만을영솔하노라나라대경을법하
야장하가물미드드러와다하거늘로왕이드고급히전상에올나여러신하를모도여란
상의론알진나라는강하고로나라는약하며저는만코나는적은중결하야왕전이용병
을살하니그제를당치못홀지라경등은무슴묘칙으로적병을몰니칠고상디부인상여
출관슈알전병이떨니와인리피곤흔중결하야우리대왕게입히드러오리디리케이든

지라이는병법에제리는리니가하능호사람으로과이호군사이만을거느리연하하야
가만이좁은길노드러가미복후에대장을보너여군사를거느리막으면적장이우리
군사일을본후반드시영치를비고올지니그적과병으로하야금가만이진나라너오
저에드러가그치중과량초를노략하면적병이슈미를능히도리보지못홀지니이는일
은바출기불의하야그방비하미업는적를차차미니적병을가히화하리이다로왕이그
의논을조츠공손권의화두장수로이만정병을거느려포오소로쫓츠민처가미복하라
하고염과로철기오만을거느려모소왕량과비장훈윤으로더부러장하에일으리계
숙과합병후이일에염피전세를버린후말을너모라왕전드러왈네나라히셔방에조히
앗셔로나라로더부러원슈업거늘루츠침노하니는스스로피망을취하미라네오는
날나의중언을듯지아니하고일향하거하면후회하나밋지못하리라왕전왈로국은편
방이라일즉이디국에붓조칠거시어늘너의쥬무리들은스스로혜아리지못하교합해
현병을막조른는다염피티로하야창을드러바로왕전을지르니왕전이대도를드러막
으며서로쓰화삼십여합에이르미염피거짓피하야닷거늘왕전이따로자아니하니왕
홀이높흔언덕에서염피피하야다라나물보고군사를희동하야급히싸르려하거늘왕
전이말뉴하야왕염과피하미참뜻이아나라미복이잇슬가두려하노라왕홀이듯지아
니하교삼군을지축하야급히싸로더니후군이보하되난디업는로군이량로쫓츠염
주체를법칙하야황손을잡아갓다하거늘왕전이디경실식하야급히인마를푸르현

과왕홀아군식몰니물보고괴를드리흐면가르치미오만정병이만산편야하야진병은
일살하니왕전이피하야다라날식도공손곤의화탕로부병을만나미능히저당치못하
고로병은피히셔급히치는지라왕홀왕전이죽도록싸화오십리를물니가하히후부
장유형모슈로하야금군스를거느리협로에미복하얏다가뒤로엄습하물방어하라하
고나문군스를거두어밤을도아본국으로도라가칠분박기티리니소왕이임의군
스를피하야화손사지스스로잡힌말을듯고십분우려하야왕홀왕전을불러쑤지저왕
너히두사람이군마를일코화손사지스스로잡혔스니무슴면목으로도라와날을보는노
하고무스를명하야왕홀왕전을너버하라하거늘보안군이이에출발주왕왕전은전
디라에명장으로여러번디공을일운지라이제만일버히면그공을일호미요또호스르
잡힌화손에게도유익하미업슬지니이다진왕이보안군에알외는말을듯고노괴가
플여왕홀을피하야서인을삼고왕전은너리쳐산괴를삼아일병너치고다시군신으로
더부러의논하되나문군스를보너여화손을구완하라하신디군신이주왕황손이호번
스스로잡혔시미속히도라오지못할지라호번변스를보너여글을전하미량국간전징에
리히와화손을볼모잡은질문이여러너라을쳐서멸호후에로나라는순당치한으로
조년의로와전나라에칭신할날이불무함을설명하는거시조홀는하노이다노왕이디
화하야글을조초아변스우셔를보너여화친홀을청하얏다라초설염피승전고를올너
고본국이로도라을시오허러왕전의뒤홀넘어하야의화리게속으로장하를구지지히

라하고잇는날회군홀시이인을잡아가지고도라와로왕을죄인디로왕이디회하야삼
군을하계라하고이인을불너쑤지저왕너에하리비가크게무도하야여러번디경을
침노하다가필경너시지잡혀왔스니네무슴할말이잇는다하고무스를명하야이인을
미러너버버하라하거늘상에급히잔하야왕가치아니하니다지금전나라형제가부
강하니만일이인을버히면전나라를큰틈을일위일후에군스를더하야로나라를칠것
시니엇지편할날이잇스리오출하리이곳에오리볼모만잡아두면이인을위하야감히
군스를더하지못할지라연즉로나라에일이업슬가하노이다로왕이듯고그러히너이
더라슈일후전나라스신우셔가와셔국셔를드리거늘로왕이죽시불너드러글을바다
코니하얏스되

진왕직은지비하고로왕전에글을드리노니본디두나라는동성으로각々디경을난
호와호도에이히로동괴를불고하야화손은잡아다가명지도셔이라하니원컨디셔
로군스를거두어의리를지히고화손을돌너보너여글육에상음이되지아니물바라
노라하얏다라

로왕이람필에우셔를조이인견왕너의진왕이임의동성에의리를알냥이면엇지여
리본너디경을침범하얏느뇨이제이인을잡아와스니참아비히저아니하얏거니와진
왕에글을스순하야가토는각기지히고이인우불원잔보너리라하거늘스신왕두나라
히비록동성이니강약경주에형제를싸라정랄이날노이러나든하필전나라뿐이리잇

고되왕도여괴이르면능하엇지못할지라지금과병하야량국에강화를일우고이인을
환귀하야타일에은혜로보답게하야던져골육에의를릴지으시면형이어나와이인을
죽시도라보너지아니면되왕이비록연성지벽이잇슬지라도되줄슬원쉬되물풀지못
할것이니대왕은갑히싱각하소서로왕이다시우셔드려무로되네가진나라에서누숨
벼슬을하느노되왕미관말직에나지못하얏느이다로왕알그되는죽히군병을육되지
안니도록하깃도다하고가장후되후글을닷가보너니로왕이공손건을명하야왕이
인을네집에다편하게두되너무곤난되지안토록음식저절은각근이공제하라공손건
이승명하코이인을말게되와집으로도라갈시맛참가로상일로중에흔사람이이인을
보고그용피비범하물보고크게흠탄하야왕괴이흔보비와크도다아지못게라이사람
이너노하회를셔남하라

잇떡양적싸히흔사람이잇스티성은려오명은불위라불위에부조가장스로업을숨하
각국에왕리하며무천미귀하는슈단으로루만금지산을모와더라곳씩맛참한단싸히
갓다그길에서이인에지나가물보미면목이괴이하고글격이비범하야귀인에괴상을
씩엿거늘불위심중에흠모하야슬며시사람다려무러왕져사람이하인이노답왕이는
진왕에터조안국군의아들일너나로나라에불모잡힌지라진나라군스가여러분디경
을침범하늘아왕이즉시죽이라하다가아직정지하얏스나지금총되에규류되야그코
초가한량이업노라불위심중에탄식왕이는괴이흔보비크도다하고집에도라가그부

천에게무러왕사람이농상하는리익과장스하는리익과사름을위하야장되에여망을
바라난거시리익으로말하면무어시나흐니잇고기위우셔왕만일사람을도와일후귀
히되면그리가천만비라가히혜아리지못할리라불위백금을허비하야공손건을천하
후에그집에조로리왕하다가인하야이인을보고거죽리력을무른되공손건이은회치
아니코실정을일으더라일하은공손건이주효를크초고불위를청하되불위왕좌중이
번요치아니하나이인을청하야동셔하미엇다하노공손건이이인을불너불위로더부
러술을마시다가반쯤취하후공손건이밧그로나잔음을타불위종용이이인을향하야
왕진왕이지금흔은지라티즈에스랑하는바는죽화양부인이오부인이또한무조하나
런하에형데이십여인이엇지다총이하를바드리오이런씨를타밧비도라가화양부인
을잡섬기면필경아들이될지나타일에진위지망을어드리라하거늘이인이눈물을먹
음고왕이엇지를바라리오다만고국에도라갈마음이살크흐나달신할게척이업노
라불위왕네비록잔난하나던하를위하야서호로가티즈와부인을잔청하야던하에속
히환국하도록주션하오리다이인이깃거왕만일그되말과가들진되장년에부귀를그
되와크치하리라서로말을맞치조공손건이드러와문왕무슴담화를하얏느노불위왕
왕손다려진나라에금옥크흔사람이멧치노하얏더니왕손이나다려아지못한다스양
하더이다공손건이다시못지아니라주셔를파흔후에불위이인으로더브리교계천
준밀할시인하야오백금을비밀이주어왕이인은주인집에좌우를잡슈응하라하고불위

가다시오릭금을너여진과보화를스가지고공손건으로리별호후에진나라할양으로
향하야가니라

츠설을위할양에일으러몬져화양부인등성에집을츠져가셔좌우를소기하되왕손이
인이로나라에잇서티즈와부인을쥬야로스모하다가날로하야금물화를붓치며다려
가게하물금쥬일합을밧치느이다하거늘부인에하외크게기하야당에나가발을
겨하고불의다려문활이느왕손이보닌거시나가자오느라고존직에슈고를더하얏스
니그장미안하거니와왕손이고국을싱각하미엇더하노불위왕손으로더부러
치잇서그심스를알거니와날밤으로티즈와부인을싱각하되어미를일흔아히그치그
정경이가련홀씩아니라어셔도라와효성으로섬기기를바라다부인에하외왕큰
병이업드노불위왕진병이루츠로나라를침범하물로왕이왕손을죽이라하되다히이
신민에보호하물힘납어아즉잔명을보전하나이러므로고국싱각이더잔절하여하디
이다부 아외왕엇지하야신민에보호하물힘납엇느노불위왕왕손이미양절일을당
하면티즈와부인을위하야오리슈하시기를과도홀씩에섯녀홀바라고분항비축하며
또글을조화하고어진스람으로천절하물이렛듯이인심을어덧느이다말을맛치며또
금은보완을드리고왕이느왕손이도라와섬기지못하물티즈와부인게효성으로티신
하야드리라하디이다부인하외문회를명하야쥬식을웃초아디접하라고즉시화양
부인게드러가불위에하든말이며보화를드린티부인이디희하야아오를도라보고왕

왕손에정성은가지로다부인하외죽시도라와불위에게회전하니불위문왕화양부인
에아들이멧치나되느노답왕솔하에일키혈육이업노라불위왕내드르니원니부인이
나라에후궁이되야즈리로티즈를섬기다가하으면총이가흔어지는지라이제부인이
티즈를섬기되아들이업스니잇씩을당하야제즈중에어절고효성잇는즈를글히여아
들을삼앗다가부인빅제후에그아들을제위왕을삼으면맛츠니세력을일을비업거니
와불연즉타일에눅치미잇슬지라후일눅치온늘엇자밧츠리요이제이인은효성도
잇거니와또호부인에게정성이잇스니이 스람을셔혀적즈를삼으면티스로서진나라
에총이가흔치자아니하리이다부인하외의말을듯고화양부인게웃고하고이뜻을
권고호되부인이듯고왕손에말이적당하도다하고하로밤에안국군을되시고종고화
락을일우다가홀연눈물을흘니거늘티제고이히녀여문기고호되부인왕첩이후궁이
되이후로지금서지혈육이업스니엇지슬프지아니하리잇가제즈중에이인이가장
현덕이잇스믈제후반키이모다일갓는비라첩에아들을삼아일후에몸을의탁고즈하
느이다티제즉시허락하거늘부인왕던히오늘은첩에형상을불상이녀이스허락하시
나명일에다른총희에말을싱청하시면오늘날첩에게허락하시물잇지아니하리잇
가티제우셔왕부인이나의말을밧지아니홀러이면병부를삭이여밍제하리라하고즉
시옥보를취하야적스이인이라네글즈를삭이여반을난호와가지고서로신표를지엇
족라부인왕이인이조나라에가셔엇지오리도록오지아닛느니잇고티제왕들을타셔

능개속히도라도도록쥬션하야보리라하더라

잇셔진소양왕은조나라에노열이플니지아니하얏거늘티지아지못하고맛춤이인에
스정을왕게고하얏더니왕이듯지아니하는지라불위다시왕후에야오양천군을보랏
하코몬져그문인을되물노소기하야양천군을드러가보고왈그티에위티하미조석에
잇스니그티아느노양천군이대경월내가무슴죄로위티하미잇스리요불위왈그티에
문하는모다부귀가검비하야미녀준마가후정에그득하되티조에문하는세력이잇
는지하나도업스니만일하후진왕이붕어하시물당하야티지왕위에나아가
면군에문하는필연그티를원망할지니연즉위티치아니리요양천군왈나를위하야무
슴게책을헛하라불위왈비인에게교를드르시면그티는가히벽세를향슈하코티산코
치편안하리이다양천군이다시썩러안조듯기를청호티불위책을니여왈지금왕에
년세놓호시고티조는스속이업는지라잇셔를당하야조나라에불모잡혀날밤으로
도라오기를원하는지라군이스스괴를드러왕후로진왕게주달하야속히이인을드려
다가티조에적조를엿게하면이인은즉무국이유국이요화양부인은무조이유제라티
조와왕손이티조로왕후의덕을감동할거시오군에부록도가허장원하리이다양천군
이무슈하치스하코불위에말을드러왕후게청하야왕후가즉시진왕게간호티진왕
이왕후에말을신청하야왈조나라화천을청하기를기다려이인을불너도라오게하
리라하더라잇셔티제불위를다시불너문왕이인이도라온후나에적저되물부왕이윤

허치아니시면아저못개라션성은또무슴게책이잇느노불위티조에마음이확정되물
알고머리를조아왈티조게셔왕손에게항념이러하시니소인은천금을앗기지아니하
고급히가셔왕손이도라도도록좌우로쥬션하야대스를일우게하리이다티조와화양
부인이크게기거하야황금삼백량을쥬며이인의타인과교접비용을하게하라하코
또의복훈상을벗치며왈불위는미리티조티부를빅하는거시니이인에게조세허견
하코너무근심말나당부하라하거늘불위즉시하직하코길을떠나한단에일으러부친
게절하코기간진나라에가셔모스흔일장설화를진고호티기뷔듯고못니기거하더라
라익일에례물을코초아가지고공손건을쳐져본후인하야왕손이인에게드러가셔황
금과의복을드리며티조와화양부인으로여스스모스흔설화를호티이인이티회하
야불위드러일너왈의복은내가남으려니와황금은그티가갓다가소용하라이러트시
날을위하야천리발걸을슈고하얏스니엇지훈공을이즈리요하거늘불위감겨하물
스레하코물너나오나라불위또흔책을니엿스니음밀흔슈단을귀신이아니면엇지
알지잇스리요즉시한단으로도라와조희라하는미녀를유인하야어언지간에포티흔
지슈삭이라이인에게드러보너여은근이티두에비포할일은은근이경영하되이인이
만일갓가이흔후진나라로다리고도라가셔다헛히성남하면이인은저의혈육으로아
라전위할거시니그리되면밖은영씨에던하이나실상은려씨의던하이라하코이인
과공손건을청하야진슈성찬이며풍류가무로한참즐길제술이반감에말하되맛춤

알기미인이잇서가무도정묘하거니와주비를지니라하오니흔번불너보소서이인이
취중에이말을듯고청의동조를명하야불너드린디불위조희를눈짓하야귀인을비라
할지음에조희연보를음겨어엿분티도로용용이나와공술이문후하거늘이인이공손
견으로함게기부물이괴지못하야황망이답례하는지라불위조희를명하야흔잔술로
술들을니거늘이인이바다들고정신을슈습지못하더라

츠셜쥬희잔의술을부어권흔후에장슈선무로일장흥치를도다낼제섬々옥슈는릉에
몸이물결에희릉음갓고소미는긴비암에쥬선동작과흙스하야완연이기력이날기바
람쥬는것갓고안기외티글이셔로섯겨어지러온것갓트여이인과공손건에마음을요
동하야두스람으로하야금심신을희미하고흔정을취케하는지라조희가춤을긋찬후
다시술을큰잔에부어권하야정신이업도록드린후에조희는안으로드러가는지라공
손건은당장취하야쓰러지고이인은맛츙닉조희를넘々불망하야불위에게청하야왈
내가외로이괴관에잇서심회를정치못하문그디도는비어나와조희로나에안회를
삼으면죽히평성에원을풀져희속신하랴하면갑시언마나되느뇨불위거젓노하야왈
너가던하에괴회를잠시풀가하야조희로하야금정성을표하얏더니던히도로혀나에
이첩을썩앗고즈하시니엇지이러듯무례하시뇨이인이슈과하물이괴지못하야쓰러
안져왈니괴니에고단흔만싱각하고취중에광언을발하얏스나실노희막츙급이라선
성은용셔하야허물치말나불위황망이위로하야왈성이천금을앗기지아니하고던하

에일을도모하거늘엇지흔녀즈를앗기리요조희다만년천하야던하를쥬지아닐가년
녀하거니와제민일응락할진디곳밖드러보되리이다이인이후의를스레하고공손건
과슈리를한가지로하야어관으로도라가니라그날밤에불위조희를보고은근이일너
와왕손이너를연々불망하야안회를삼고쳐하네네뜻에엇드하노조희왈첩이임의군
즈를섬겨잇디지하얏거늘이러듯무정흔말노타인을섬기라하시느뇨불위비밀이
일너왈네가나를싸라종신하면일기장스스람에처지나지못할거시요왕손은장츙
진왕이될지니너의총이를남으미무궁할거시요다형이복중으희가남즈이면또흔
티즈를북할지라우리가은근이진왕에부되될거시요부귀도무궁할지라네가우리부
々에정의만잇지말고나에게교를루설쳐말지이다조희왈군즈에경영이이러듯크서
니엇지감히거역하오리잇가당장에부々에은이차근어잠이한이로다하고눈물이압
흘무리거늘불위로만져왈네가엿정을잇지아니할진디타일에진나라련하는즉우
리량인에소유라셔로부워되여져나지아니하면엇지아름답지아니하리오드디여하
늘을무리쳐밍제하고그날밤에등침할시는은근흔스정은타일과달나형언기어렵더라
괴일에불귀공손건에집에일으러작일한흔죄를스레흔디공손건왕손으로더부
러모져가셔스레흔타인디도로혀급히시니불권하물용셔하시려니와조금잇다왕손
과크쳐회스하리이다불위불감하물일것고이인을드러가보고왈던하가소첩에비루
술을협의치아니시고괴의를삼고져하시기로짐삼간권하야허락을바닷거니와오날

이곳략신이니 맛당히 처소로 지송할 것이 다 이인이 불승감복하여 왕선성에 근림은
분골난망이로 소이다 공손건이 당일 잔치를 예비하고 조희를 마조 드릴시 조희이인으
건더 브리가 연을 띠 쯤더라 염용시에 왕

盡道王孫能秦國

다일오디 왕손이 능히 진나라를 세웠다 하니

誰知暗贈呂家兒

누가 려가 은히를 만이 준줄 아니요

추설이인이 조희를 어드미물을 만만고기와 갖치 총익함미비상흔지라 이렇듯 일삭이
지닌 후에 조희이인을 향하여 왕첩아던 형으로 면하를 되셔 티고잇는 이다 이 말을 듣는
이인은 리력을 아지 못하고 왕나의 혈육을 품었스니 엇지 깃브지 아니리오 본디 조희가
이인을 피시기 전과야 포티흔지 두달 만에 이인을 만난 지라 팔삭이 되면니 용은 심삭
이니 성산홀과 미가잇스런 만공교하 다 전연이 동정이 업스니 무삼연고인고이는 일후
진국태왕이 될과상이라 엇지 심상하리요 열달이 되든 주년 만에 일남조를 단정하디홍
광이 만실하고 괴이흔식드른 전후 좌우로 나라든다 은히를 보미고 골이 품준하여 간쑤
에 모진이 마와 압속에 두어 기이가 낫시며 등과 목에 룡에 문쳐 영릉하고 우름소리 굉
장하거늘 이셔는 진소양왕스십팔년 정월이라 인이 크게 깃거왕니 드르니 장리응문홀
인주는 반다시 이상흔 징죄잇다 할며 이아히상적비범하야 일후던하에 정스홀과
상이요 또 정월에 나하스니 디스여 조희의 성명을 인정하야 은히홍을 조정이라 할다
조정은 일후진나라 정통을 이어 륜국을 병탄하리니 이곳진시 황일너라 잇셔 불위가 조
희성남하물듯고 심중에 스스로 깃거하야 참리익에 크를 탄복하더라

조정어점々조라 세살이 되든 희에 진나라하군스를 보니 여한단을 애우미그형세 심히
위급하거늘 불위이인드러일너왕조왕이 혐의를 면하에 게음기스워오니 찰하리도 망
히주선하소서 불위또흔교를 내어 위선황금삼빅근을 가지고 남문슈성장을 주며
왕내가 본리양적싸사람으로 장스를 단다 가우연이여괴와셔 슈접하얏거니와 지금
진병이성을 에운지 날이 오리디다 만위티홀뿐아니라 가권을 령솔하고 도로 교향으로
도라갈실각이 간절하야 장군게청하느니 원장군은 문에 날씩에 방히가 업도록 하옵쇼
셔 슈문장이 즉시 허락하거늘 불위또빅금을 가지고 공손건에 집에 가서 주며 왕고향으
로도 도라가노라하고 드티여 남문슈성장에 배방히되 지아니도록 부락하물청하니 공손
건이 여시응낙하는 지라 대져 슈성장에 게조괴가 혼번허락을 드렸신즉 부절업시또공
손건에게 전락필요가 업지마는 중간에 무슴변경이잇슬가즈렐하야 좌청우축하야 후
려가 업도록 함일너라 불위이인을 지도하야 조희모즈를 미리조괴집에 갖다 두고 다시
공손건에게 나가 작별쳐로 주효를 고초아 권하며 왕삼일너로는 발행하깃스온즉 창연
흔회포아엇지다 형용하오리잇가하고 큰 잔을 연속하야 권홀시 공손건이 주는 디로 마
시미또흔이 취하야 불성인서러라 그밤으로 이인을 변복을 시기고 여려하인 틈에 셤기
뒤를 따르라하고 불위에 부지압홀셔스남문으로 나갈시 슈문장으로 하야 금진가를

지못하게 하더라 잇썬 왕홀의 군사는 서문밖게 둔치고 잇섯스나 그리로 못갓스면 길
이 첩경이 될터이나 양적싸호로 가는 길은 남문으로 통할지라 몬져 슈성장에 게고 향으
로 가 깃다 하얏기로 엄적기를 위하야 짐짓 남문으로 나가나라이 인과 불위부지하인으
로 더 버러 밤시도록 다라나되 만을 자나가셔 왕홀에 군중으로 드러가려하니 날이 밝아
오며 순초군에 게잡힌 비되어도 허히코저하는지라 불위금하이인을 무르쳐왈져스
람은 진나라 왕손으로 조나라에 불되얏다가 지금도 망하야 한단으로 좃츠본국으로
가는 길이니 너히 등은 속히 길을 인도하라 초병드리 불승경희하야 삼인을 말게티와 왕
홀에 군중으로 드러가나 왕홀이 급히 리력을 드른후이인을 마저 드러의복을 못쳐넙히
고대연을 배푸러 접디후후에 이인을 향하야 왈대왕이 이벽전장을 감독하
사 항궁에 출어하섯스나 밤비가 서승후하소서하고 거마를 무초아치행하야 보디너라
소양왕이 이인을 보고 깃보물이 고지 못하야 왈티즈가 주야로 너를 생각하더니 이는하
늘이나에 손즈를 보디여 범에 입을 버셔나미로다하고 명하야 왈너는 몬져 함양에 도라
가 부모에 녀네하물위로하라이인이 진왕게 하직하고 불위부조로 더 버러 슈위를 할가
지로하야 함양으로 행하니라 초설 불위왕손이 인과 혼가지로 왕게 하직하고 쳐나 함양
에 일으러 몬져사람을 보디여 티즈안국군에 게보흔티국군이 화양부인다려일너왈우
리아히가왔다하니 부인과 혼가지로 죽당에 안즈기다리라하더라 불위인드려왈화
양부인은 본리초나라사람이니 면히고 왕아들이 될터인즉 모름즉이 초나라
웃슬입고 드러가정성으로 뵈는례를 일위소서이인이 즉시 웃슬 못쳐넙고 동궁으로 드
러가셔 안국군게 절후후에 이에 부인게 절하고 눈물을 흘너왈 불초이오리슬하를 썬나
되시지 못하얏스오니 복원량친은 불효에 죄를 용서하옵소서부인이 이인을 보되머리
에 남관을 쓰고 발에는 포석을 신고 쫓는도포와 잔죽씨를 썬엿는지라 문왈히기간에
한단에 잇섯다하니 엿지초나라의복을 포하얏느뇨이인이 다시 절하고 왈 불초이날 밤
으로 조모를 생각하야 초복으로 괴렴을 지었느니라 부인이 대희왈 초인이라 맛당하나
에 아들이 될만하도다 안국군이 혼참보다가 왈이아히일흔을 못쳐조초라하미가하도
다조초머리를 숙이고 사례하거늘 안국군이 다시 무러왈네 무슴베척으로 버셔나도라
오뇨조초불위에 힘을 입어 전후쥬션일을 세々히고흔티국군이 즉시 불위를 불너치
하왈과연선성이아니면우리아히엿지힘디를 버셔나스리요위선동궁부전이 빅경과
제티일소와 황금오십일을 주는거시니 기간관관에 조버를하라 부왕이 환궁하시기를
기다려벼살을 더으리라하거늘 불위무슈사례하고 물너나오고 조초는 날너 화양궁중
에 거처하니라

초설소양왕은 군중티소스를 왕홀에 게전락하고 즉시 환궁하얏더라 일일에 안국군이
일즉 드러가 조희하고 인하야 알외여 왈 신즈이인이 죠나라를 치다가 도로 허스로 잡힌
비되엿시나 대왕이 참아군스를 더하거시니 시문옥두셔이고기로 항상저하섯거니
출치근다히이양적티고려불위천금가산을 허비하고 슈고를 불고하므로 조왕에 게되

날노 소기 할야 이인을 구완 할야 환국 할야스 나 이는 진나라에 불세 지공을 일운지라 원
티왕은 작록으로 상할사 그공호를 포창 할소서 소왕이 크게 기거 할사 불위를 불너 드려
티즈부를 봉할사 고등궁에 직원을 겸할시니 불위고두스는 호고진나라에서 흥공찰적
하니라 불위 만이 부인아 오를도 출할티 일즉 조초를 세워 부인에 적 조를 삼게 할소서
만일 제 조중에 무슴변이 잇슬가 두려호니 이다 황리(皇嬪) 즉시 드러가 불위에 말을드
러 부인게 고할 조초가 환국함도다 부인에 구완 할 심함이 어니와 일즉티 조옥보에 동
밍인지 할스니 제제를 일치 마르시고 적 조를 삼아 일후변 경치 못 할피 초를 삼으소서
부인이 사 말을 가 탐 할사 궁중이 고 호 할라 티 조게 청 할야 왕일즉이 조초로 할야 금첩
의 아들들을 정 할기로 할스나 지금사 지궁중에 머물고 고박게 반포치 못 할시니 만일
제 조가 일후에서 로 닷도 미 잇슬가 두려호니 이다 국군왕이 말이 정히 합당 할다 할고 조
시 턱일 할야 조초로 화양 부인 의 아들들을 삼은지라 일노 조초 부인에 총이 날노 더 할고 조
초의 사업은 크게 화정 되니 부지 중 불위는 집을 화 할야 나라 가 되고 씨를 썩려 씨 시 나스
니 장력에 었지 된고 하 회를 셔 남 할라

츠설공손 건이 술은 저고 날이 밝아 올세에 좌위 보 할티 왕손이 부지 거 처 할야기로 즉시
사람을 보너 여 불위에 집에 탐 문호 즉 불위도 여 시 업다 할호 이다 공손 건이 티경 할야 왕
불위에 말이 삼일니로 가 깃다 할더니 오늘 밤에 업서 지문 었진일고 할고 즉시 남문 슈성
의게 탐 문호 티회보 왕 불위 가 작야에 가 권을 인 술 할고 나가 며 왕 또 대부의 명령을 무렷
다 할더 그제 왕 손의 가는 거 손 못 보고 다 말 불위의 권속 현이 리다 할더 이다 공손 건이
말을 구르며 할고놈 가는 속에 왕 손이 팔 경섯기 었도다 내 장스 할는 놈에 게 교에 썩셔도
다 할고 게 청 구 할기를 위 할야 상티 부인 상 여 의 집에 가서 문 저 문인으로 할야 금동 호 후
에 즉시 드러가 불위에 간 계로 아인을 썩여 가지고도 망 할편을 제 사히 설 명 할티 상에
듯고 탄식 할진나라 하 아 직군스를 일으 혀지 어니 문이 인에 불모 할므로 조서 할미 리니
지금 탈신도 주 할야스니 었지 무스 할리요 공손 건이 부복 체 읍 할며 게 교를 무른티 상에
왕스 이 지처에 었지 할리요 조왕게 주 달 할야 인마를 푸러 급히 좃치 되이 인이 아 즉 멀니
헹쳐 못 할야슬지라 다 할이 잡으면 의 어니와 불연 즉 티거 의로 다 할고 즉시 공손 건
을 다 리고 드러가 조왕께 스실을 고 할티 조왕이 대경 알네가 무슴 일노 이 렷 듯 낭 꺾을 할
야는 노공 손 건이 머리를 좃고 목이 매여 능히 말을 너지 못 할며 주 왕 소진이 왕명을 이어
조금도 방심 처 어니 할고 단속을 할 왔더니 천만의 외에 양척 대고려 불위라 할는 놈이 문
직희는 조로 부동 할야 이인을 싸여 도 주 할야스 온티 다라 난 지는 하로 썩 되엿스오니 북
위대왕은 급히 군스를 발 할미 조 할가 할호 이다 조왕 왕네가 이인을 도 주 식이 고진나라
로 할야 금군스를 일으 키게 할야 나 의 근심을 더 할야스니 맛당히 법으로 버힐 일이나
이 제 군스를 주는 거시니 속히 잡으오 되 만일 허 할면 맛당히 용서 처 어니 할리라 명령
이 절엄 할거늘 상에 다 시 주 왕 인마를 만히 할는 거시 단기로 발 할야 문져 상 하 티 슈리
술다려 중 간을 살피라 할고 그 뒤 호로 썩는 것만 지 못 할가 할호 이다 조왕이 할당 이

여상여에게 칙칙히로 할앗시나 주야비도 할야 다라난이 인을어더가 잡으리요 필경히
행상을면치못할엇더라

초설진왕이 왕손에도 망할야 한국함므로 붓터조나라치기를더욱 급히할거늘 조왕이
스제위급할야 스신을보너여위나라에 구원을청호터위나라의경장군신원연이주왕
진나라히조나라를급히에우문다름이니라 조나라이제나라로더브러데(帝)를닷도
미라지금제민왕은죽고형제는점々약할앗스나진나라이홀노데호(帝號)를정치못
함므로형의를몰지못할야 군스로침범함미닷치지이니 할미나진실노조나라로할야
금진나라에스신을보너여제호를존칭할면진왕이깃거할야 군스를거두리이다이는
잠간허명으로심화를면함는게척이니이다 할니위왕이본리조나라를구원할마음이
업든초에신원연의헌책을을히너여이에즉시신원연으로스신을정할야발행할니라
수일만에한단싸히이르러스기를又초아조왕게알원디조왕이군신으로더부러가부
를의논할터중의불일할야결정치못함는중에령원군도심게산란할야능히결단치못
할거늘긋씩만참제나라로중연이이말을듯고평원군보기를청함는지라로중연은본
티나하심이제시절에능히변스전과를급한지라이러므로시인드리천리구라일컷거
늘전과와엇지천리구에긋치리오이는나는도기로다 할타라성정이고상할야스환에
뜻이업고멀니놀기를조화할야도라단이다가불행이조나라를에운성중에쓰여잇던
지라맛참진나라를존칭함다는말을듯고혈과분발할야평원군을드러가보고알내드

르니 누가와서진나라를존칭함기로의논할다 할니과연그러할요평원군이와나는본
티화살에놀너인식와又처흔빅을임의일했시니무슨언논이잇스리요마는위왕이장
군신원연으로할야금조나라에와서말함미로다로중연이글오터그되는던하에어전
공조로명을일기신원연에게바렸느냐 지금신원장군이어터잇느냐 맛당이그터를
위할야척할야돌너보너라평원군이인할야신원연에게말함니연이또호로중년선
싱에일흥을드러는지라고러나그변스인줄알고그의논을어즈러일가두려할야스양
하고보기를원치이니 할니평원군이강권할야드스여로중연을마즈함세공판에일으
러년으로더브러서로볼서연이눈을드러보니정신이막고골격이썩혀나포스이신선
에티도가잇스미속연이공경함을세닷지못할야일너글오되너가선싱에용모를보니
평원군에게청구할미잇지니닐지라엇지할야오리에은성중에거할야가지이니 할
요중연왕너가평원군에게구할미업고그옥이장군에게청함미잇노라연왕선싱이무
어슬청함노요중연왕조나라를도읍고진나라를제어할말을청함노라연왕선싱이엇
지할면조나라를도읍고중연왕너가장차위나라와연나라로할야금동게할면제초량
국은싸라도우리라연이우셔글오터연나라는너이지못할거니와위나라인죽너가잇
스니선싱이엇지날노할야금조나라를돕게할리오중년이글오터위나라가진나라이
이제라청함는히를보지못함미니만일그히를쓰은죽조나라도읍을괴필할리라연왕
나라하제라청함면그히가엇다 할요중연왕진나라는이에의를바리고머리공(首

을 승상하는 나라이라 강함을 밋고 잔스함을 써서 신령을 드록하니 제가 못치 제후
가 되서 오허러 이르키 무례한 것은 만일스연이 황제라 칭하면 더욱 그스오나 물베출지
니 나가 찰하리 동치를 말바 죽을 지언정 참으 그 덕성이 되지 아니 할거시 요위나라도 그
우리 되를 달게 녀이느냐 연왕위나라이엇지 달게 너기리 요비유 건디 동십인이 흘스탐
을 좃침은 엇지 지력이 유인만 못지 못하리 요진실노 두려움미니라 중년왕위나라이스
스로 보기를 중 못치하느냐 니 장차진왕으로 하야 금위왕을 살니 며 정담게 하리라 연이
발연 변식왕선성이 엇지 능히 힘의로 흘 권력이 잇느냐 중년왕 옛날 귀후 악후 문왕은 유
(紂)의 삼공이라 귀회음름다운 설이 잇서 유왕께 드렸더니 그 설이 음난함을 조화하지
으니 하야 유에 뜻을 거살니 거늘 유가 그녀를 죽이고 귀후를 정담으니 악회잔흔티아
을 나 악후를 또 살 무니 문왕이 듯고 탄식하며 유가 다시 문왕을 유리에 구류하야 거의스
경을 당하얏스니 엇지 상공에 지력이 유만 못지 못하리 요런조가 제후의게 명령하미 곳
이러하미라 진나라이 방조하데라 칭하면 반드시 위나라를 칭하야 드려와 조회케하리
니 일조에 귀후 악후에 배이플행하나 누가 능히 금하리 요신원연이 침음하야 디답지 못
하거늘 중연이 또 글오디 특별이 이럴쌔만 아니라 진나라히 칭대 이후에는 또 만다시 제
후의 덕신을 변역하야 그 미운바를 써서 그스랑하는바를 유며 또 장차 그즈녀와 시첩으
로 제후의 안회를 삼게하리니 위왕이 엇지 능히 안연하며 장군이 또 엇지 작록을 보전
하리 요신원연이 이에 변연이 이러나 서지리 칭스왕선성은 참던하에 희한흔 선비라 연

이 청컨디 나가 우리 님군으로 감히 두 번진나라이 제한다 는 말을 하지 아니리이다 이씨
진왕이 위나라스신이 조나라에 가서 진나라를 칭제하조의논하는 일을 듣고 심히 깃거
하야 그 처기를 정지코써기다리가 밋칭대하는 의논을 이루지 못하고 위나라스신이
갓단말을 듯고 탄식하야 글오디 이에 운성마온디스탐이 잇스니 가히 경히 보지 못하리
라 하고 이에 물너는 분슈에 둔치고 왕홀을 정계하야 마음을 써준비케하더라 지설신원
연이 잔뒤에 령원군이 또스탐으로 하야 금업하(鄴下)에 이르러 구원을 진비에 게구호
디비가 왕의 명으로 쓰스양하니 평원군이 이에 글을 지어 신릉군 무기를 썩지져 왓승
(勝)이 써스스로 못쳐 혼인 할바는 공조의 높흔 의로써 능히스탐의 난을 금히하미라
이제한단이 조모에 진나라에 항복케 되얏스되 위나라 구원이 이르지 아니하니 엇지 승
이 평성을셔로의탁하는 비리 요령자(舍姊)가 성이 파홀가 근심하야 날밤으로 슬피우
니공조는 비록는를싱각지 아니하노 홀노 령자를싱각지안느냐 신릉군이 글을 웃고조
조위왕게 청하야 진비를 신축하야 군스감을 구하니 위왕왕도는라이스스로 진나라
황데 되를즐겨이니 하고 라인의 힘을 비려진나라를 물너치라 맛참니 허락지 아니하디
신릉군이 또 변식변스로서하야 금벽가지로 달너되 위왕이 듯지 아니하니 신릉군왕내 평
원군을 위하야 찰하리 홀노 조나라에 다다라 함게 죽으리라 하고 이에 거괴벽여승을
깃초이 두루빈과 파언약하야 곳진나라 군스를 쳐 평원군에 란을 좃코조하니 빈의의
는지 천여인이라 하야 리문에서 후성으로 더브러스별흔디 후성왕공조는 협을

사어다신이년로하야능히죽지못하니물케々々하라신릉군이여러번후성에게눈짓
하되후성이오모말이업스니신릉군이앙々이하직고심여리를형하다가심중에성각
하되너후성을더접하미래를다함밀너니이제니가스디에는이가되후성이일언반스
로노를위하야썩흠도업고또는의형하를막지으니하니심이괴이하도다이에빈직을
머므르고홀로슈리를잇그러후성을보려하니빈직이다글오되이는반쯤죽은사람이
라밝켜쓸티업는줄이니명공이엇지가보리요신릉군이듯지안다

각설후성이문밖게있다가신릉군의도라움을바라보고우셔글오되영(羸)이진실로
공주에반다시도라오물썩발노라신릉군왕무술연고이노후성왕공지영더접하기를
듯더이흐지라공지불척흐샤에드러가보되신이보너지이니하니필연신을한홀지라
일노써공주에도라올출아랏노라신릉군이々에저비왕처음에무리가스스로선성때
일이미잇는가의심하야건고하를이른지라이러므로써도라와그연고를청하미니라
후성왕공지손길은지슈십년에외에게흔괴이흔게교니물듯지못하고홀로공주로더
브러강흐진노라히갈날을범하라하니고기로써쥬린법에게더짐갖흔지라무슴유익
함미잇스리요신릉군왕무괴썩흐무익흐줄은다못평원군으로더부러스피미두더
우니의홀노살지못홀지라선성은엇지썩홀고후성왕공지썩흐즈리에드러가로서
에천々이게교하를용납하라이에중인을물니치고무러왕년드르니여희왕게총이잇
다하니가히미드라신릉군이갈오되그러하노라후성왕영이또드르니여희의아비가

옛적에사람에게죽인비되미여희왕씩말하야아비원수를갑고즈하야그사람을구하
되삼년을엇지못하얏더니공지직으로하야금그원수에머리를버쳐여희에게드렸
다하니이일이과연하야신릉군왕과연이일이잇섯노라후성왕여희공주의덕을감동
하야공주를위하야죽기를원함미하로이들이아니라이제진비에병부가왕의눈압히
잇스니오직여희가힘이능히도적홀지라공지진실노흐번님을여려여희에게청하면
여희필연죽치리니공지이병부를엇고진비에군사를써셔조는라를구완하교진노
라를물니치면이는오괴의공이니라신릉군이살을처음으로세다름갓트여저비칭스
하고이에빈직으로하야곰병부도적홀일로써스스roi여희에게비니여희왕공주의
르러니신안은으로하야곰병부도적홀일로써스스roi여희에게비니여희왕공주의
명이잇셔비록첩으로하야금담화를발불지라도또흐무엇슬스양하리요이밤에위왕
이술을마시고취하야누은지라여희곳병부를도적하야안은을쥬어글너신릉군손에
일으니신릉군이병부를엇고다시가후성에게스레흔디후성이갈오되장쉬박게잇스
리인군에명을받지안는비잇스니공지곳병부를합하되진비밋지안코후련의를죽추
다시위왕게청하야셔는일이화히치아니하리니신의직쥬히는런하력스라공지가히
더브러형하야진비죽추를보면심히조커니와만일듯지아니커든곳쥬히로하야곰쳐
죽이라신릉군이눈물나리를썩당지못하니후성이가로되공지두렵이잇는노신릉군
왕진비는하은장쉬라무죄하니만일죽지아니하면맛당히쳐죽일지라니일노써슬허

고다른 두려호문업노라이에 후성으로더 브러함게 주히집에나가고연고를말호디
유히우셔알선은미천호소인이라공조에조로도라브물입으되써잡지아니호바는소
례는무소용이라호얏더니이제공적금호미잇스니정히승명호날아로소이다후성이
글오되신의는능히죽초히호출어나년로호므로써능히멀니발섭지못호이니청권되
흔으로써공조를보너리라호고스스로수리합히목찌르니신릉군이슬허호야이에그
집을후히주어염습차상케호후조기는감히머물지못호고드디여유히로호가지로슈
리에올나부녀호바라고가니라

각설위왕이와설호온디잇는병부를일코삼일을지닌후쳐닷고심중에호창경계호야
여희에게언일호야무르디조못아지못호다창탁호니이에두루공안을취지되전연이
하락이업는지라문득안은으로호야금궁녀와니시와니침호든궁녀를일호히국문호
라호나안은이심중에쳐다른지라거죽추문호야다스렷더니위왕이싱각호되공조무
괴가루초나를권호야진비를신축호야군사를나가게호며저에슈하빈의중에계명구
도호는지심히만호물싱각호교필연저의소위라호고사람으로호야금신릉군을불넷
더니회보호되소오일전에빈의천여명파수리빅승을거느려조나라를구완호라갓더
이다위왕이대로호야장군위경으로군사삼천을거느려성야로신릉군을죽초가니라
지설한단성에서구완병을바라되일은저업스미빅성이진력호야분호이나가항복
할의논을두리조왕이크게근심호니아전에아들리동이라호는저잇서평원군을달디

여길오되빅성은날노성을저희는더그디는편안이부귀를누리니누가그디를위호야
힘을다호리요그디진실노능히부인이하로호야금항오스이에셔함으로난호게호고
가중에잇는지빅을다호터써장사를주면장세위티호고괴로온싸히잇드라도은혜를
감동호마쉬워진나라막기를받다시힘써호리이다평원군이그괴교를죽초죽기로결
단호군사삼천을모집호야리동으로호야금거느리고성을둘코나가밤을타영을엄습
호야진병천여인을죽이니왕호이대경호야또호삼십리를물너하쳐호니성중인심이
조금진정호는지라리동이몸에중히상호무로집에도라와인호야죽으니평원군이슬
피을고명호야후히장사지너다지설신릉군이업하에일으러진비를보고알대왕이장
군의오리진중에서슈고호물민망이녀이스날노호야금장군의척임을디신호라호섯
기로왔노라호고인호야유히로병부를बाट러진비를유며점점호라호니진비바다들
고심중에저져호되위왕이심만대병을너게맞겨시미니가오늘서지전정에실슈가업
거늘호조글도업시다만공조의손으로병부만전호니이일은가히경솔이쳐단치못호
리라호고신릉군다려일너알공조는슈일만기다리면군사에항오와문부를슈정호야
명빅히전정호리이다신릉군알지금한단에망호미조석에잇거늘엇지시각을머물니
요진비왕이는소기미아니라군과대사를도라가왕게알원후에군사를너여유리이
다말이맛지못호야주히소리를질너크게부저져완원슈왕명을봉호칭치아니호니이는
고심을품엇도다진비눈을호거왕니는잇던사람이노주히소미속으로써스십근떨티

을니여변역코치진빈에머리를치디진비혼도괴절하는지라신릉군은병부를가지고
제장다려닐너왕위왕이날노하야금진비를디신하야급히조나라를구완하라하얏거
늘진비왕명을거역함으로이제죽였스니삼군은안심청령하고망동치말나하니영종
이숙연하더라맛춤위경이업하에당도하얏다가신릉군이진비를죽여조나라를구할
뜻이임의갑흐를요량하고즉시도라가고즈흔디신릉군왕그디괴왕왔스니내가진나
라파하물구경하고도라가왕게보하라하거늘위경이비밀이문져위왕게보하리라하
고드디여군중에머드더라신릉군이삼군을크게호쾌하고다시령을나려왕부지함게
군중에잇거든아비가도라가고형제함게잇거든형이도라가고독신으로형데업는조
여든즉시도라가부모를봉양하고질병이잇는조여든나아가약으로치료하라하니이
에령을듯고도라가물고하는지심분지가량이나되는자라그중에정병팔만을썩바
군법을다시정제후신릉군이빈귀을거느리고몸소스졸을위하야선봉으로나아가
진군에영을쳐드러가니왕홀은위병이졸지에일으물싱각지아니하얏다가창졸간막
아쓰호는지라위병은용뎡을더하야나아갈시평원군이또호성문을열고나와막거늘
대전일합에왕홀에군사대피하야분슈평으로다라나거늘왕이왕홀에군사피하물듯
고전령하야에운거슬풀고도라오라하다이씩정안령이이만군스를거느려동문에둔
치고잇다가위병에막은비되여능히도라가지못하고탄식하야왕니가근본위나라사
름이라하고즉시위나라에항복하나라춘신군이진나라군사프러가들듯고또한군스

를들너도라가미한왕도괴회를다다시상당을회복하나라잇씩는진소양왕의오십년
이요주난왕에오십팔년이러라조왕이천하주국을뜻초야군스를호쾌하고신릉군을
향하야지비왕조나라망하물다시회복하든다공조에합이라조고로현인이라도공조
를당치못하리로다당초출전할씨에평원군이선봉이될터이나수뢰에상하물인하야
신릉군을전구를삼앗더니신릉군이알노써조공하는빛치잇거늘주희나와글오되나
의덕은가히이를지라도남의덕은잇지못할비어늘공제왕명을썩며진비에군스를싸
서조나라를구완하얏서나조나라의는비록공이잇슬지라도위나라의는죄가업지못
하거늘공제조공을삼으문무슴연괴효신릉군이붓그려하야왕선성에말이올도다
하고즉시한탄으로드러가나라조왕이천히궁실을정하하고신릉군을마져음하며레
를구진이하는지라신릉군이동계로조초을나가좌정후에조왕이술잔을천히드러왕
공제조나라를위하야근로하서문형언치못하노라신릉군이스레왕무기(無忌)는다
만위나라에죄는어뎛스나조나라에도실상공이업노라하고잔치를파흔후여판으로
나아가나라조왕이평원군다려일너왕파인이오성(五城)을버혀공조를봉하라하얏
더니위공제구지스양하고맞자아니하물파인이라도허무렴하물당하얏스나변라이
말하지말고종용이과으로하야금문져위공조에제권하라하니평원군이조왕에명
을드러신릉군에게전하디신릉군이저삼고스하다가강잉하야밭드니라신릉군이조
나라구완하물소원디로맞쳤스나참아위나라에도라가지못하거느린군스를위경

맛겨보던후인하야조나라히머으니라잇씨위니라에잇든반외드리모다조느라조
느라느신릉군을의뢰하니인심에복종함을가히알니라조왕이곤골을버혀로중년
을보흔디중년이구지스양하디다시천금을너여주니또받지아니하고왕스람이부귀
를인하야남의게골을진디찰하리반천으로주유함만가지못하다하거늘신릉군과평
원군이함께만류하되일향듯지아니하고표々이설치고이러느니그고상하지키는범
인에비할비아니라

츠설조느라에쳐스모공과설공이란지잇서주점에숨엇더니신릉공이그두스람에어
질을듯고몬져주히로하야금쳐져본뜻을일은디두스람이즐기여보지아니라하느지
라하로는신릉군이두스람이집에머머러잇스물듯고몬져주히로거죽장스하는모양
을쌘여압하다리고느아가곳을살펴볼취량인이외인을응접지아니하며맛춤화도
를끼고술을마시거늘신릉군이곳드러가성명을동하며이피스모하던뜻을설화하디
량인이회피부득하야마즈드러일장교분을미즌지라신릉군이모공설공으로더브러
스고미정의심말하더라일々은평원군이그말을듯고부인다려일너왕내드르니부인
에아오는런화호길이라모든공중의대두하리업다하더니오늘날추축하는지그동
뉴가아니々명예손상할가하노라부인이신릉군을보고평원군에탄식하던말을고하
니신릉군왕내가평원군에어지다하를흠모하야위왕게득죄함을고과치안코군스를
잇그러도나라를구하얏더니지금보디번외에추축이다만호탕을뿐이요실상이진선

비를구치아니하난지라내일죽드르니조나라에모공설공은가위현스라하되흔번교
접지못함을한일너니오늘날이야다행이맛났도다이츠관지면평원군이엇지어질다
하리요내가오리머물지못할지라하고즉시번외으로더부러행장을제축하야발행하
라하니평원군이이말을듯고늘나부인다려일너왕내가부인의아오에게실례흔비업
거늘엇지이렇듯가라하느뇨부인은혹그뜻을아느니잇고부인왕내에아오가군에어
질지못함을한단하야발행하라하느이다평원군이났을가리오고탄식하야왕조나라
에도어진스람잇는줄을느는아지못하얏스느신릉군은말서아랏스내지헤엇지신
릉군에게밋츠리요피츠비교하면인류에밋치지못할비라하고신릉군의여판에나아
가전후실연흔죄를스과하라고다시머물기를청하니라이씨평원군에문외이점々쳐나
신릉군에게부치는지러한이요스방에노는반외들도다신릉군의게로도라가니일노
죽츠평원군에명망은침잠하야지더라

지설위왕이위경에모함을듯고신릉군이병부를도적하야진비를죽이고군스를거느
려조나라로간줄알고대로하야신릉군에가권을다거두고번외이떠러져잇는즈를다
버히려하니여희씨라고왕이는공주에죄아니요천첩에죄오니첩을만번이나죽이소
셔위왕이디로왕병부를도적흔죄네란말이나너희왕첩의아비죽인원수를신릉군이
잡하주는고로첩이그덕을잡고즈하되그희가업더니이번의신릉군을위하야병부를
죽적하야주는지라만일진나라를이기고조나라를구왕흔죽대왕에위명이스히에진

공하리니첩이비록죽음을만조각에너나엇지한하리잇가마는다만신릉군에가권을
거두시고넉을버헐다가신릉군이군를편하면그죄를조복하러니와이그면엇지
치하랴하시느니잇고위왕이침음반향에노괴저기풀녀문왈네병부를도적하야늘노
써보닌느뇨여희왈안은으로주어보닌니이다위왕이좌우로안은을결박하고문왈네
엇지감히병부를신릉군에게갓다주요안은이티왈소신이일즉이아지못하느이다녀
희는으로안은을보며왈항일에내널노신릉군부인게뜻그린함을보닌거시그속에병
부를너헐노라안은이그뜻을알고크게우려와부인이소신에게분부하시는거슬엇지
감히어그리잇가다만함을보닌노라하시며여려접을몽하얏스오니엇지그속에잇는
것슬알나잇고여희또함을보며왈첩이죄를스스도당하리니타인의게연루하지마르소
셔위왕이썩지저안은을우으로나리고여희는닝궁에가도며신릉군에소식을드러정
람하랴하더니위경이군스를거느려도라움을보고대희하야여희와안은을방송하니
라츠결정안평이위나라에항복하물응후범수는천고희하야여희와안은을방송하니
지라이에셔고디죄하니진왕왕정안평을맛김이본디과인에뜻이니승상에게엇지
섭하리요하고저삼위무하니군신의노이분하거늘진왕이범수에마음이불안하
가두러이에하령왕정안평에일을다시말하는지잇스면버히리라하나다시말하는
업더라범쉬스스로뜻이불쾌하야주나라를멸하고진나라로데호를일카러진왕에
뜻을즐게하랴하야장당으로하야금한나라양성을쳐삼천기를동하랴하더라

저설초왕이신릉군이진병을과하물듯고춘신군이공업시도라오미탄식왕평원군에
합동하자는말이거죽말이아나라과인이신릉군갓흔사람을어더잡수를숨으면엇지
진나라를근심하리요춘신군이붓그러온빛치잇셔는아가골오디저도음게합동하
는의논에대왕이룡약장이되여게시니이제진병이시로이되하야그괴운이최절을
스미털국을언약하야진나라를치고다시주왕을달녀런즈를시키고진나라를도모
면오피에공이되리이다초왕이대희하야털국을언약하고주나라에스신을보닌니라
주난왕이임의진나라하삼천을동하야주나라를치라하물드러더니초나라에서청
물드르미정히병법에일은바몬져발하야사람을제어한단말에맛천지라군스를발
라하시주난왕이비록던즈에위에거하얏시느주나라싸흔들에난화하람과왕성은서
주를민들고공부와성주는동주를숨고난왕은셔주공을의지하야잇더니진나라를
고조하야셔주공을명하야군스를거두니겨오오륙천인이이되느오허려군마에부
를두지못하는지라느라가온디부민에게썩어군스에량식과과계를민들고문서를
썩어반스하는날에스로잡어엇는거스로갑흐마하얏더니셔주공이이군스를거느
고이궐에가진쳐제후병을기다리니한나라는진병이치니스스로먹기에결을쳐못
고도나라는에운거슬픈지오리지아나남저지두려오미쉬지못하고제나라는진
와즐기는고로치기를원치아니코오직연느라와초느라이군스를거느려와더니진
왕상당이임의양성을쳐싸하고영괴심만병을거느려함곡관맛게진치니연나라와초

라이군스를진천지석달이로되 다른나라군사아니오물보고도라가거늘서주공이
또흔도라오니부민드리문셔를가지고의빛슬달나야날마다군문밧게셔요란흔소
리니침서지드리니사난왕이붓그리되답말이업는지라이에고티우허가피하니후
한이그티를일홈하야도희되라하니라

각설진왕이영교왕장을명하야양성으로쫓쳐주를치니난왕이군스와량식이다
업는지라할일이업서군신과조손을거느리고티묘에가을기를삼일을향고진군중에
와항복하거늘장당은난왕을호송하야진나라로오고영교는량양성에드러가과계를
안함하더라주난왕이진나라히드러와돈슈스좌하니진왕이어엿비녀양성을지
희게하고일홈을나츠아주공을삼앗더니양성으로간지흔달이못하야병드리죽으니
라진왕이영교로하야금락양정장을발하야주나라종묘를헐고대과외구정을옴겨함
양으로가져오라하니구정을옴길전날에숫그은티셔우는쇼리나더니운전하야스슈
에일으리숫하느히흔연비가온되셔나라물속으로드러가니이는데쥬숫치라영피스
람을물속에드려보니여츠즈미숫흔보지못하고다만창룡흔느하비늘을거스리고
잇스며경각의과도가이러나거늘두려느오고그날밤에영피삼을썩니쥬무왕이티묘
에안조영피를불너다가썩짓고좌우를명하야티장으로등을삼빱을치더니삼을쳐이
며등창을아라진나라에도라와죽으니라진왕이팔정과대과를진느라티묘에두고
상대게데스지니고려통국에반포하야조하하라하니한왕이몬져드러가칭신하고제와

초와연느라죄다상국을보되여하례하되흔노위는라허스신을보는지아니커늘진왕
이하중슈왕계를명하야위느라를치라하니왕계본티위는라되물을밧고등하던지라
그일을루설하니위왕이두려스신을보되여스죄하고티조로볼모하미일노부터류국
이다항복하니라진왕이왕계에위느라에등하물알고불너드러버히니범쉬더옥평안
치못하야하더니연느라스름최혁이란지학문이너르고구변이잇서제후를유제
하더니대량에일으러상좌보는당거를만느무러글오되내상이엇더하노당게이옥히
보다가우으며알선성이코는번기코고엇기가목버다놈고얼골은웃듯하고눈섭은것
출하고두무릅이굽으니내드른죽성인은상보자아닛는다하니즈못선성인저최혁이
당거에희롱인줄알고이에글오되부귀는내가스스로밧는줄알거니와아지못하는바
는슈한이로라당게알선성이사제로붓터스십삼년을살니라최혁이소왈되고량을먹
으며거마를타고황금인홀씩여인쥬에압히셔옴양하기를스십삼년이면죽하니무
어슬더구항리요하고한나라와조나라로도라단이되만느지못하고다시위나라로가
다가도적을만느형장을다아이고느무아리셔쉬더니당계를또만느니당게희롱알선
성이오하러부귀를하지못하얏느노선성에얼골이금국과슈데니맛당이서방에가일
을지라이제진나라상범쉬정안평과왕계를천거하얏더니다중죄를어드미범쉬부
그럽고두려워짐을버스려하니선성이엇지그리로가자아니코이에서곤하느노최
혁이알일이머러가지못하노라당게주머니에셔금두어기를니여주거늘최혁이사에

라에 드러가 각 정주인 다려왈네 밥과 고기를 잘 츠려오라 너 승상이 될새 후히 갑흐
리라 주인왈 직은 었던 사람이 완티 승상되기를 바라노 최태왈 나의 성명은 최태이라
런하에 말 잘하고 지혜잇는 선비라 진왕이나를 한번 보면 반다시 너 말을 깃거 할야 응후
를 좃고 날노 씨 승상을 삼으리라 주인이 밋 친 말로 알고 응후에 문외다려 말하니 범쉬
듯고 왈 오데 삼티에 일과 제 조벽가에 말을 너물을 거시 업고 여러 사람에 구별이나를 만
나면 모다 굴하거늘 최태은 었던 사람이 완티 진왕을 달너 여나의 승상을 셋는 다하노
하고 사람을 직접에 보너 최태을 부르니 주인이 최태다려 왈 직에 회시 장지하리로
다그티 응후를 티신 할야 승상이 되리라 하더니 응휘부르니 반다시 큰 욕을 만나리라
최태이 쇼왈 너 응후를 보면 제 반다시 승상인을 너게 사양하리니 곳하 여 진왕을 볼거시
업다하고 상부에 드러가니 범쉬 상에 거려 안장거늘 최태이 기리 읍하고 절하지 아니
하니 범쉬 쯤 혼안지라 하지 아니하고 여 성문왈 너를 티신 할야 승상이 되릿노라 하는
사람이 네다 최태이 서사 단정이 티왈 그러 할야 라 범쉬 왈 네 무슴 말노 너 벼살을 세앗는
다 하노 최태왈 슬프다 군을 었지 보기가 느즈노 대저 사시에 차례로 공을 일운즈는 물너
가고 장차오는 지는 느오느니 군이 오날들이 가히 물너갈새 니라 범쉬 왈 내 스스로 물너
가지 아니면 능히 보너 리오 최태이 사에 려 티 일을 이크리 반복의 논하며 휴영과 죄와
부귀를 탐 할야 화를 취하던 말을 절사하하고 상앙과 오괴와 티 부종이 시세를 모르고 그
목을 맛츠든 말을 연 할야 일으미 말이 당연하고 리치가 분명 할지라 범쉬 왈 선성이 스스로

로 말 잘하고 지혜 잇다 하더니 과연 하도 다하고 상좌로 마저 티 절하고 의 일에 범쉬 진왕
게 드러가 주왈 산동으로 좃츠은 최태이란 제왕 피에게 죄 잇고 시스를 능동 할야 죽히진
나라 정사를 맛김 죽 할기로 감히 숨기지 못 할야 대왕게 천거하노이다 진왕이 청과에 최
태을 불러 드러 룩국 겸 병을 계교를 무른티 최태이 종용이 티 답하며 기히 진왕에 뜻을 합
게 하니 왕이 즉 일에 직경을 비하니 범쉬인 할야 병을 일으코고 정승인을 돌너 보너기를
청흐티 진왕이 듯지 아니 터니 범쉬 병이 위독하다 하고 닐지 아니 하니 진왕이 사에 최태
을 비하야 범쉬를 티신 하고 강성군을 봉하니 범쉬는 응싸흐로 되거하니라

각설연쇼왕이나라를 회복 할야 지위 삼십스년에 혜왕에게 전위하고 또 무성왕과 효왕
을 지니 여연왕희에게 이르러 아달단으로 티즈를 봉하니 이씨는 연왕희에 스년이라
이희에 조나라 평원군이 죽고 엄과로 정승을 삼아 신평군을 봉하거늘 연왕이 조나라이
점경임으로 그 상국을 볼보너 여 평원군에 상사에 조상하고 으빱금으로써 조왕
에 주용을 드리고 형 데지의를 연약하니 틀복이 조왕이 저를 후상 할가 하얏더니 조왕
이 예스로 티 접하미 틀복이 깃거야 도라가 연왕게 고왈 조나라이 장평에 피하므로 북
터 장조는 다 죽고 어린 조는 아직 장성치 못흐니 상국이 서로 죽고 연 피하엿스니 이씨
에나아가 치면 조나라를 가히 멸하리이다 연왕이 그 말을 후 할야 참국군 악학을 불러 무
르니 악학이 치지 못하므로 티 혼티 연왕이 노왈 너의 아비 분묘 조나라에 잇스므로 처지
스하느나 악학 대왕이 밋지 못하거든 선이 시험 할야 보리이다 대부 장계 잔왕왕

야호로오백금을보내어조왕에주용을드르시고도라오며곳치면신의업고의가
공이업스리이다연왕이듯지아니코를복으로되장을습고악승을도아십만
을거느러되싸흔치라하고연왕이천히십만병을거느려점응할시술례에을흐니
비손으로왕에웃을당기며눈물을흘녀왈조나라를칠지라도왕은천히가지마
소서연왕이노항야말로장계를츠니장세발을붓들고을거늘연왕이더욱노항야장
를욕에가도고기가를불너도라오는날버허리라하더라조왕이연왕이이르를듯고
신으로의론하니염피왈연나라이우리상휘후후에군사항오에츠지못하다항야
미니느라그은되빅성의느히십오제이상은다군스를습으면군세스스로떨치고연
라히적기리니를복은장략이업고경진은일흥업는소지요악한악승은창국군에
연고로힘을다항지아니리니연군은가히셔々파항리이다항고안문스름리목이장제
스름천거항니조왕이염파로대장을습아군스오반을거느리고호싸헝가들복을
기게고리목으로부장을습아군사오만을잇그러경진을되적항게항앗더니염피그
장정은습기고다만로약으로영을버리니를복이조군이피폐항를보고깃거천히느와
싸흔치다만일합에조군이되피항야닷거늘를복이싸라오더니륙칠리는가서복병이
너다라를복을성금항고연군을크게파항니악승은조나라에항복항고경진이되싸
흔치다가또흔리목에버헌비되니악학이조나라에투항항의연나라량로군이다함볼
은지라연왕이연야항야중도로도라가거늘염피기리모라성을에우아스신을보내어

화천항기를빌거늘악한이염파다려왈본티조나라치기를슈창흔것는를복이요티
부장계선견지명이있셔괴로이잔하다가육에갓쳤스니화천을허락하라항거든연나
라다려장계로상국을삼야야허락하리라항소서항니염피그말티로흔티연왕이홀일
서장계를스항야정승이어나장계스양흔티연왕왈과인이경에말을듯지아니항다가
피항앗고이제화천을청항디경이아니면되지못하리라항니장계정승인을츠고주왈
악승악한이조나라에항복항앗스나그전세에티공이잇스니그쳐즈를들녀보녀어
야화천이되리이다연왕이그티로항니장계조군에가스죄흔티염피허락항고죽일에
반스항야조나라로도라가다조왕이악승으로무양군을봉항고악한은예와츠치창국
군을습고리목으로써싸티슈를삼으니라연나라정승장계비륙정승이되앗스나연왕
에본심이아니므로반년이못항야병을일컷고벼살을스양항니연왕이극신으로티신
항다
저설진나라소양왕이저위오십륙년에나히철십이긋과와흥고티적죽위항니이는효
왕이라아들초로티즈를삼다한왕이진왕에상스를듯고최복을납고드러가조상
며일보기를신즈의례와又치항고제휘다티신을보녀어장스에모히나라효문왕이
금데를지닌지삼일에상복을벗고군신을잔치흔후후궁에드러가흥항니나라스탐이
다의경려불위즈조로속히왕이되라항야왕의좌우를후회항야술에독약을타드릴
을의심항되감히말항지못항다라즈최죽위항니이는장영왕이라화양부인을받드

러티후를삼고조희로로왕후를삼고조정으로티즈를봉하고일흥을꽃쳐조즈는덜고
정이라하다최적이장양왕에뜻이러불위로승상을삼으라하느졸알고병을익고정
승인을스양한티러불위승상이되여문신후를봉하고식읍을하람과과양사히십만호
를유니러불위빙상, 평원, 신릉, 춘신등에일흥을스모하야또흔직관을베를고빈의
삼천여인을모흐더라

저설동주군이진나라에두님군이연하야죽으물듯고빈직을덜국에보디여합동하야
진나라을쳐라하다하거늘러불위장양왕게말하야알서유는임의멸하얏스나양유일
믹이오허려잇셔스스로문무의조손이로라하고던하인심을요동하니마조멸하야스
람에바람을흔흐소서진왕이즉시러불위로하야금십만군을거느러동슈를쳐멸하고
공성등철읍을거두니유나라이삼십칠티에력년이팔백칠십스년이러라진왕이다
시몽으로하야극한나라을쳐성고와형양을싸이고조나라을쳐삼칠성을취하고상당
을싸이고위나라고도를쳐다가이괴지못하더왕홀노오만군을거느러몽오를도으니
위병이너러번피흔지라여희위왕게말하야신릉군을불너도라와덜국을합동하야진
병을막으소서하니위왕이형제위급하무로홀일업셔안은을보디여정승인을가지고
황금치백으로써조느라에가신릉군을마조오라하니라

츠설신릉군이위나라이장창조괴를마조라하말을듯고한하야왕이나라를조나라
에바린지십년에이제일이급하야브르니본심으로나라를싱각하미아니라하고문에글
을붓쳐갑히위왕에스명을드리는지잇스면죽이라하니안은이조나라에일은지반
일이되야도공조를어더보지못하고위왕이다시스름을보디여지축하미성화조흐니
안은이그문하빈직을붓들고말하되다감히응치못하고스양하니안은이다만신릉군
에밧게나을씩를기다리나맛춤나오지아니하니안은이홀일업셔초도하디니모공
설공이일으거늘안은이올며소회를말흔티이인왕우리맛당이합쳐권하리라하고신
릉군게드러가일오되공지장찾위나라로도라가신다하거를특별이와하저하노라
신릉군왕그런일이업노라이인왕진병이위나라에오기를급히하나는말을공저드지
못하시니잇가신릉군왕드렸스나다만무기위나라를하저흔지십년이라의입의조나라
스름이되얏스니갑히위나라일을아른체하저못하노라이인왕공조의조라를중하너
기고일후이제후에들니는바는위느라이잇는연피여늘진느라이일조에대량을파하
고선왕의종모를못지르면공저무슴나츠로느라에붓쳐여잇스려하느니잇고말이
맛지못하야신릉군이유연이일어느섬을홀니며스레왕선성이무기를썩지즈시미심
히정티하니무기하마하드면던하에죄인이될번하얏드다하고죽일에형장을찰혀드
러가조왕게하저하니조왕이그팔을잡고낫치아니하야왕과인이평원군을일코공조
를장성갓치밧거늘일조에과인을바리고가라하느노신릉군왕무기참아선왕에종피
진느라히멸하미될가하야도라가오느진실노대왕에복을합입어스적을보전하면다
기회를날이잇스리이다조왕이이에상장군인슈로신릉군을유고방난으로부장을삼

피조노라 군소심만을 발호야 주거늘 신릉군이 빈익을 각국에 난화보너여 구완을 청호
니 연과 초삼국이 신릉군을 중히 녀여 각군소를 보너여 위나라 절제를 좃도라

각설 위왕이 정하위급호더니 신릉군이 소국병을 거느려 오물듯고 회블즈승호야 위경
으로 호야 금국중에 있는 군소를 다 일으려나가 신릉군을 접응호니 잇세진나라 몽오는
협주를 에우고 왕홀은 화주를 에헛거늘 신릉군이 위경으로 초병을 합호야 몽오를 막으
되거 죽신릉군에 괴호를 쉼자 국계 직회어나가 쓰호지 말나호고 몽소조나라 군소심만
파연군과 한군으로 더브러 말나 화주로나아 갈시 제장 다려알소화산이 동으로 퇴화
산에 닳고셔 호로 위슈를 림호얏스니 진병이 반다시 위슈로 량식을 운전호리니 방남은
일군을 거느려 위슈에 가량 선을 겁척호라호고 한나라 장슈공손영파연나라 장슈장거
로 각소화산 좌우에 더복호얏다가 진군이 일으거든 호가 지로 처라호고 신릉군이 친
히 정병삼만을 거느리고 소화산아리 더복호얏더니 진장 왕홀이 신릉군이 장슈퇴여군
소를 위슈로 보너물듯고 대경왕 신릉군이 용병을 잘호야 나의 량도를 씌는 도다호고
군소를 반에 난화성을 에우고 나문군소는 왕홀이 거느려 위슈로 향호시 소화산에 일으
니 홀연 일리인 미연장사의 괴호를 가지고 길을 막으며 또 일군이 한장공손영의 괴호
를 세워 협공호거늘 왕홀이 마즈 쓰화미급슈합에 군셔보호되 위슈에서 량선이 조장방
난의 겁척호비되다호거늘 왕홀이 비록 호응호는 잇지삼국병을 당호리요 오시로 보너
유시갓 처쓰호더니 신릉군 진병이 임의 피군홀을 줄헤아리고 복병을 노화일시에 좃쳐

니 전병이 본디 신릉군의 위명을 두리는지라 사름마다 목숨을 앗기고 심담이 봉렬호야
도망호니 왕홀이 더피호야 오만군을 색고인동관으로 다라느니라

각설공의 신릉군이 화주로가물듯고 이에 조약을 머물너대 장과 처를 세워 협주대치를
직회오고 정병을 모라 쉼니 화주로향호더니 신릉군이 왕홀을 좃초화음디경에서 몽오
를 관노 일진을 크게 파호니 몽오의 군소죽은 거시또 호만여인이 요위왕위경과 조장
경양이 협주되체에 몽의 엄습호물알고 음습호야 협주에 문기를 풀고 화음을 바라고셔
치니 몽외비록 몽을 잇호는 잇지오로 병을 더져호리요 급호히 군소를 거두어셔 호로다라
느니라 신릉군이 함국관에 일으려 전쳐요 무양위호다가 호달이 지난 후에 반스호야
도라오니 각국병이 각자 본국으로 도라가다 위왕이 성밖삼십리에 나가 신릉군을 마
즈형데서로 보듯고 비회교집호야 아올노 명에 호야도라가 신릉군으로 상호을 삼고서
음다섯성을 더몽호고 대소를 다결단호게호고 주히조령장군을 삼으리라

각설 몽오와 왕홀이 진나라에 도라가 죄를 청호디 진왕 왕경 등이 여러 번 전공을 세웠고
이번피호는 평등에 죄아니라호고 죄주지아니호니 강성군해척이 주왕 각군이 합종호
는 호갓공조무기잇는 연피니 왕은 사신을 위나라에 보너여 화호지의를 밋고 신릉군을
청호야 함국관에 드러오거든 죽여후환을 씌호소셔 진왕이 그계교를 좃찰시 신릉군
이오지아니호고 주히로호야 금구슬호쌈을 받드러스레호니 진왕이 심중에 더로호
더니 몽의 주왕위나라스신주히는 진비를 쳐죽인스름이니 이는 몽식라진나라에긴

쓰소서 진왕이 유히로 버살을 더흐되 유히구저스 양할거늘 진왕이 더욱노하야 유히를
잇그러 호권은 온티너흐니 그속에 털이아롱진 큰호량이 잇다가 스름을보고 달너드러
물너하거늘 유히크게 호소티지르티 축성이엇지 강히 무례하리요하 고 눈을 브릅쓰니
눈망울이 등잔갓고 눈가이다 찌어저피가 호량에게 뛰는지라 호량이 셜며 업티여 감히
움작이지 못하거늘 좌위다시잇그러너니 진왕이 탄왈오 확임비라도이에 서지는지
못하리니 노화보니면 신릉군에게 날키를 더하미라 하고 더욱항복기를 핏막호되 유히
머리를기동에 브티지니 기동은부셔지디머리는 썩여지스아닛는지라 손으로그 목중
게인후를손코죽다 진왕이 군신다려왈 유히는죽엇스니 신릉군이 전갓치잇스니 엇지
할여야 그군신을리간하리 요감성군책탁이 유왕대왕이 금만금을니이사가만이제
작을위노라히보너여진비에당을쳐저금으로주고말을니티 제취신릉군에 위엄을두
려하야 밧드러 위왕을삼으련다 하면 위왕이 쓰러신릉군의 권세를씩슬거시요 제취또
호프러질거시니 우리인하야 군스를쓰면 어렵지아니리이다 진왕왈 선다하 고 또일오
되위티즈증이우리는라히불모하얏스니 과인이 죽여분을볼가하노라 책탁이티왈
호나티즈를죽이면 위는라이 또티즈를세우리니 조금도 위는라에 손할비업스니 티즈
를비러위는라에 반간을노흠만갓지 못하니이다 진왕이크게세다라 티즈증을후티하
고 스름으로티즈에게왕티하야스피고가만티즈다려왈 신릉군이 밧게심편을잇서

제후를스피고이제위는라티장이되미제후병이다 못치이니련하다 만신릉군이잇슴물
알고 위왕은아지 못하는지라 우리진는라도 신릉군의 위엄을 두려세 위왕을삼고연화
하라하나 신릉군이서면반다시진는라 스름게말하야 티즈를죽여 후환을업시할거시
요 그러치아나타하야도티진는라 서늘어죽으리라 티즈증이올며 계교를구하거
늘 킵이왈진는라이 위는라와 동화하라하니 티즈는엇지 위왕게글을보너는라로다
러가기를청쳐아닛는노티제왕비록청호를진는라이 엇지 줄거늘노화보너리요외
왕진왕이 신릉군을밧들너하미본심이아니요 특별이 두려하미니티진는라로써섬
기스름을원하면진는라이 좃치리라티제그가르치는티로글을만드러주거늘진왕
에글두북을써호봉은 위왕게드리고 유히가 병드러죽었다하야 그신체를돌너보너며
호봉은 신릉군에게보너며 별노히 폐획을보너니 위왕이 전비에 빈킵에 흐르는말노조
초의심하더니 진는라히서은글을보미위는라로화호를밧는다하는실은 신릉군을
공경하 고 하는 뜻이요 또티즈에게신을보미 더욱의심하는중에스지 신릉군부중으
로가는말을짐즈루설하야왕이듯게하얏더니 신릉군이 진왕에서간이 오를보고왈인
신이엇지스스로이진왕에글을상동하리요스지스삼진왕에은근흔뜻을고하거늘
저슴물너치더니 위왕이 스름을보너지라 신릉군왕이 임의 진왕에글이오물아랏
스니 밧지아니하야도 밧지아니하리라 하고그글과 폐획을봉헌쳐로가지고드러가을
년티 위왕이 썩혀보너하얏스되

공조에 위병이던 하에 진동하리던 하 제 휘 마 음을 기우리는 자라아는 제 업셔는 를기
르쳐위를 정히 하야 제 후에 평슈되기를 바라노니 아지 못개라 위왕이 어너덕에 위를
스양하느뇨 목을 들히여 바라고 저근물건으로 정성을 표하노니 공조는 죄주지 말느
하얏더라

신릉군이 주알진느라 스름이 간스 하야 이글로 우리 군신을 이간하미니 이다 위왕 왕공
지임의 이런마음이 잇스면 언저과인에 압히셔 회답을 쓰지아닛느뇨 신릉군이 이에 지
필를 취하야 회셔하되

무리군에 세상에 업슨은혜를 바다 죽지아니면 갑지 못하리니 남면하단 말을 츠마인
신에게 흘비아니라 하얏더라

위왕이 또 혼스신을 보니 여스레 하고 티즈증을 돌려보니기를 청하니 진왕이 허락하야
보이니라 신릉군이 비록마음에 붓그러미 업스느 위왕에 마음이 이체하야 맛찰너셔 연
치못홀 줄헤아라고 드티여 일커러 조회하지아니 하고 정승인 슈를 밧치고 빈키으므로 더
부러긴 밤에 술마시며 부너를 갖마이 하야 일야에 즐기만하더라

지설진느라 소양왕이 지위 습년에 병들거늘 여불위공의 드러가 병후를 못고내시로 하
야 금왕후게 글을 보내여 옛날 밧제를 일으니 휘또 훈구정이 쓴치지아나 불너드려스듯
하고 불위약을 써왕게느오니 병은 지흔달만에 봉하거늘 티즈정을 제우느니 하게오십
삼세라 장양후를 돕히티 후를 삼고그아오성교를 장안군을 봉하교느라 일을 다 불위에

계결 단하야 일홈을 상부라하니 러 불위아비 죽으리스 방제 후빅키이 조상하는 저저지
곳고거미 동구에 메여시니 진왕에 상스보다 더하더라 진왕정의 스년의 황충이 동방으
로 좃츠와 하늘을 그리니 곡식을 거두지 못하교 또 여이티 처하거늘 러 불위빈키으로
의논하교 령을느려 곡식 천석을 드리면 버살 일금을 주리라하니 후세에 랍속하는 절레
일노브러비로 소창설이되니라 이히에 위느라 신릉군이 주석에 상하야 병드러 죽으니
풍환이이 통을 파히하야 또 호죽고 빈키이 스스도록 절너 죽는지 빅여인이라 진왕정
의오년을 못터진 병이삼진을 처심여성을 잇고오년에 일으러 위느라 안회왕이 흥하
고 티즈증이 셔니이는 경민왕이라 진느라 이 위왕과 신릉군이 죽으물 보고 전일 귀흔원
한을 갑흐라 하야 티장몽으로 위느라 을 처산 조등이 십여성을 싸히니 위왕이 조느라에
스신을 보내여 통호하거늘 조느라 조양왕이 또 혼진느라 이 침로하물근심하야 스름을
부러조국에 보내여 신릉군과 평원군의 합종하는 언약을 다시 미즈라하더니 홀연 보하
되연느라 허국신으로 티장을 습아 북변을 침로하다 하거늘 조왕이 방남을 불너의논
하니 방남이 티왕국신이 스스오로 린장 신출밧고 남을 경하녀이오미이 제피목이 대국
을 직회였스오니 하령하스군스를 일글고 남으로 회하야 그 뒤를 싣케하교 신이 일군을
거느려가 마즈면 가히이 괴리이다 조왕이 그배교를 좃치니라

가설극신이 역슈를 중산으로느와 상산디경을 범하니 군세 심하날내거늘 방남이 대군
을 거느려 동원에 진 쳤더니 랑군이 셔로만느 싸홀시 방남이 악승악학으로 좌우익을 습